

광주법원, 선거법 재판 '6·3·3' 원칙 지킨다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법정기한 준수 의지...안도걸·정준호 내년 1월 집중심리 방침 변호인들 "재판 부실로 방어권 보장 안된다" 반발...귀추 주목

광주법원이 '사문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거법상 '6·3·3' 재판 조항을 준수할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가 선거재판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광주지법에 기소된 각종 선거사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워 재판 진행에 눈길이 쏠린다.

25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의 원고 사촌동생 A(구속)씨, 선거사무소 종사자 등 총 14명의 두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올바른 증거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증거의 인부(認否)'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재판을 위해 내년 1월 집중 심리를 끝자로 한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첫 증인신문을 시작해 내년 1월 2번째주와 4번째주의 경우 각각 한 주에 3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격일로 하루 중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재판에서만 30여명의 증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신속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전국 모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낸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법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안 지켜도 그만인 혼시규정

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재판부의 집중심리 선거기일 지정에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 변호인은 "격일로 재판을 진행하면 서울에서는 변호인들은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시간에 쫓겨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2번째주와 4번째주는 각 2일간 재판을 진행하고 3번째주에도 하루 재판을 진행하는 절충안을 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쉬운 사건은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많고 관련자도 많아 재판을 서두르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재판부를 정조준 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일주일에 재판을 몇번씩 진행하면 밤을 새워 일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물러서지 않고 "12월 첫 재판 후 한 달간 여유 기간을 두고 심리를 진행하고 2월에는 재판부 인사가 예정돼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뿐이라, 집중심리는 1월뿐"이라면서 "증인신문을 하루에 3명씩 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6개월이라는 1심 재판

진행 기간이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렵겠지만 개인의 사정을 다 받아 가면서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 재판부에 안 의원 사건 말고 다른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안 의원 측의 입장만을 배려해 줄 수 없다"고 말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 재판도 집중심리로 진행될 것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증인신문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질문은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심야 흥기 들고 아파트 배회 광주서부경찰, 10대 붙잡아

심야에 흥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10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A(17)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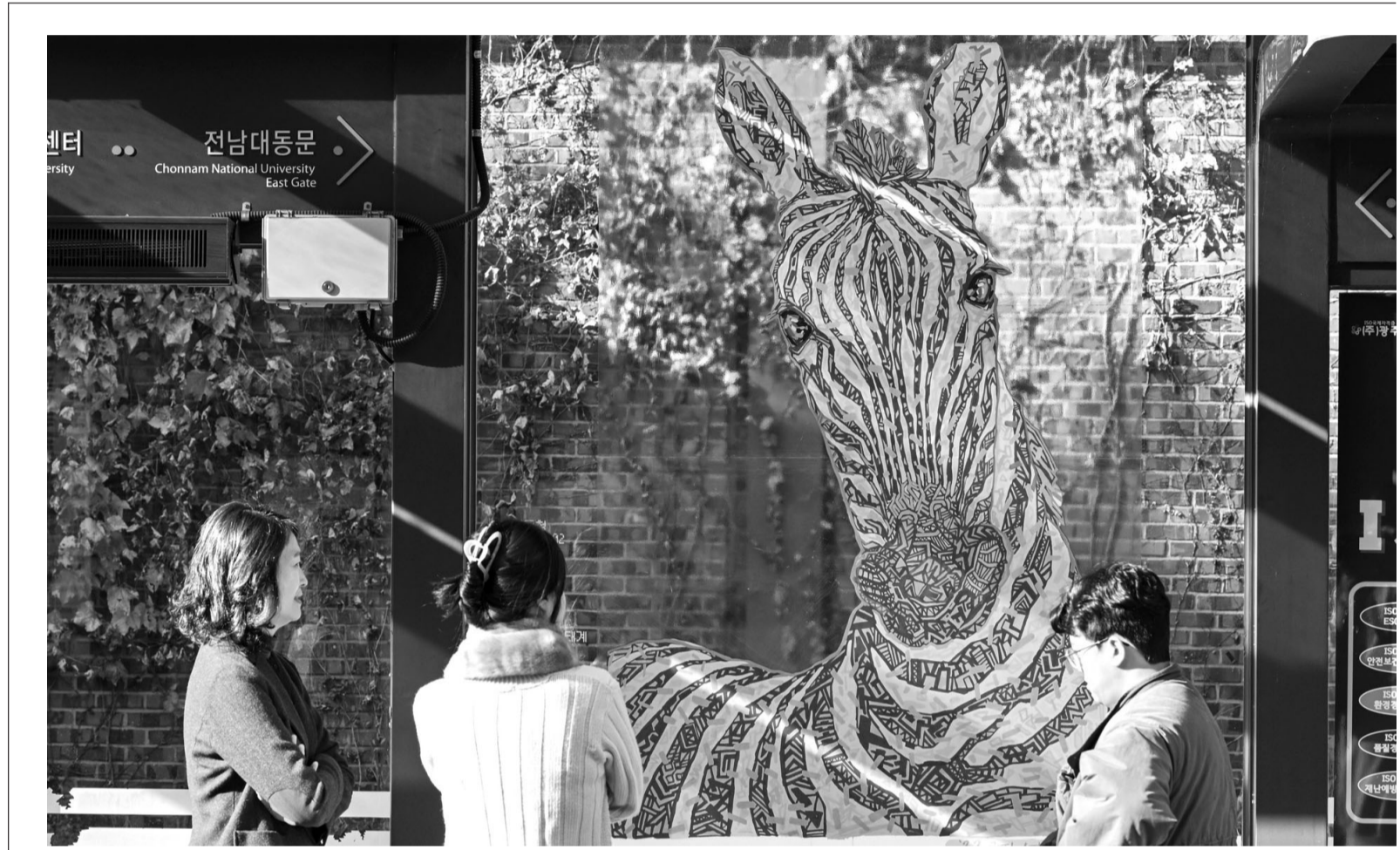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0시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흥기로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흥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A군은 주민 B씨가 "위험하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자 "남 일에 무슨 상관이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여자친구와 다투다. 상심해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갤러리가 된 버스 승강장

2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유개승강장에서 주민들이 유유재 작가의 '편집된 생태계-얼룩말'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북구는 지역 작가들의 소장미술품을 유개승강장에 전시해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라인더 날 부러지며 튀어 신발장 만들던 70대 숨겨

철제 신발장을 만들던 70대가 작업 중에 부러진 그라인더 날에 의해 숨졌다.

25일 구례소방과 구례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 40분께 구례군 산동면 한 주택에서 A(79)씨가 쇠골부위를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집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제신발장을 만들기 위해 혼자 작업을 하던 중 낡은 그라인더 날이 부러져 몸으로 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완도서 선박 들이받고 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 구속

항해중인 선박을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이 구속됐다.

완도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장 A(42)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께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일정항 북쪽 방향 0.3km 떨어진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1.28 t 급·승선원 3명)을 운행하던 중 다른 양식장 관리선 B호(1.81 t, 승선원 5명)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호 우현 일부가 파손되고 승선원 1명이 발목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피해 선박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4시간여만에 검거됐다.

지난 2017년 취업비자가 만료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추방당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 7명 발표

헌법재판관 후보 김성주 판사 등 선정...일부 고압적 행위도 여전

'재판에서 예단을 드러내고,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각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5일 공개한 '2024년 법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사례는 재판 진행

상 불이익 암시, 불필요한 재판 지연 등 다양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변호사회 606명 변호사 가운데 264명의 평가를 받은 법관 489명(타지역 법관 포함)의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집계됐다.

공정, 품위·진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489명 중 광주지역 법관은 158명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3년간 평균점수(84.31점)에 비해 법관 평가 점수는 올해 소폭 상승했지만,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71.82점대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과거에 선정된 하위 법관이 연속 선정되지 않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진절 법관으로 김성주(57·연수원 26기) 광주고법 민사 2부·행정2부 고법판사, 김용신(46·36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이재경(43·36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이광현(48·37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지

혜선(41·38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나상아(42·40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 김대현(41·변시 4회) 광주지법 민사 21부 판사를 선정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김성주 고법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나상아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광주시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진절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